

# 〈진공 이야기 Vacuum Magazine〉를 창간하며

노삼규 | 한국진공학회 회장

2014년은 한국진공학회 Korean Vacuum Society 가 이란성二卵性 쌍둥이를 낳은 기념비적 해이다. 창립부터 지난 22년 간 발간해 온 〈한국진공학회지 Journal of the KVS〉가 〈ASCT(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란 새로운 이름의 국제학술지로 다시 태어남과 동시에, 학회 소식지인 〈진공 이야기 Vacuum Magazine〉가 세상에 처음 얼굴을 내민 해이다.

〈진공 이야기〉는 2년 후 창립 4반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진공학회가 급변하는 연구계와 산업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기로 자임自任하면서 창간되었다. 과학·기술·산업 모든 영역에서 국가간·학문간 경계를 무너뜨린 세계화의 거센 물결은 학제간 융합·복합과 산·학·연 협력을 강요함과 동시에 인적·지적 자원의 교류 및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는 학제간 연구와 융복합 기술을 주도할 국제적 학술지로 〈ASCT〉를 펴내게 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학회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회원 교류의 촉매제로서 홍보잡지 〈진공 이야기〉를 창간하게 되었다.

〈진공 이야기〉의 창간 취지는 진공관련 과학·기술·산업 각 분야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과 소식을 보다 빠르고 풍부하게 전달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주는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신과학, 신기술, 신산업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산학연 연구개발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대학실험실, 국책연구소, 산업체의

연구개발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장비·시설 등 물적자원의 공유와 함께 산·학·연 인적자원의 교류를 이끌어내는 미디어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진공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기술교육·강습, 각종 행사 등을 안내하고 관련 부처 (미래창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기획 또는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프로젝트를 시의 적절하게 소개함으로써, 현실감 있는 정보와 자료가 연구계와 산업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는 학술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준 과학기술계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학제간 융복합과 산학연 협력이라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여, 우리 학회는 현재 4,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큰 규모의 학술단체로 외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제 수준에 걸맞는 내적 성장을 통하여 다음 4반세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진공 이야기〉는 한국진공학회가 세계적인 위상의 학술단체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다음 세대가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기획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창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경완 초대 편집위원장과 위원들의 봉사에 감사 드리며, 〈진공 이야기〉가 연구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사랑받는 홍보잡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저자 약력〉

노삼규 박사는 1978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동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9년부터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미국 브라운대학교,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에서 연구하였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한국물리학회 반도체분과 위원장, ICPS, ISPSA 등 국제반도체학술대회 조직(부)위원장, 한국과학재단 수리물리학 전문분과위원, 글로벌연구소(GRL) 책임자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국진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sknoh@kriss.re.kr)